



2024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4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여성환경연대" 미래비전 계획서

■ 제1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공동대표 : 이안소영 채은순 양지연 송주영 이 사 : 장이정수 강희영 조혜영 최정은			
설립년월일	1999.6.23	상근직원 수	11명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201호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홈페이지	www.ecofem.or.kr	모 법인명	-
공익법인	Y	주무관청	환경부
조직의 설립목적 미션 : 여성이 주체가 되어 생태적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비전 : 여성이 주체가 되어 생태적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여성환경 의제(정책)에 대한 연구, 여성환경인의 지도력 개발, 국내외 여성환경인의 연대를 통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조직의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3) : 총 4,642 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37	611	536	566	500	933	859

- 최근 3년간 수익비용 내역 :

	2021년(연말)	2022년(연말)	2023년(연말)
수익 총계	500	933	859
재단 지원금 총액	0	500	500
비용 총계	439	551	616

● 주요 사업(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모두를 위한 월경	인구 절반이 겪는 보편적 문제이자 여성건강의 바로미터인 월경! 월경 빈곤 해소 및 안전한 월경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포함 월경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파한다.
기후위기X여성	모두의 현실로 다가온 범지구적 해결과제,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사회적 약자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고,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제안한다.
유해화학물질 저감 및 제로웨이스트	화장품을 비롯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제품 속 유해화학물질이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과 일상 속 대안을 제시한다.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여성 #환경 #기후위기 대응

■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제2장은 전년도에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정 가능)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젠더감수성과 건강한 몸교육의 출발점, 모두의 월경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생애주기에서 평균 40년 동안 월경을 한다. 월경은 여성 건강의 중요한 지표이자 여성의 몸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출발점이다. 건강한 월경기간을 보내는 것은 소득이나 연령, 종교,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며, 당사자와 연결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문제다. 더불어 여성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여성과 연결된 모두의 젠더감수성과 건강한 몸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사회인식과 여성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월경과 월경하는 여성의 몸을 혐오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때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으로 도구화 하는 N번방 사건이나 교제폭력, 교제살인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줄어들 것이다. 월경을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에서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일, 초경부터 완경까지 다양한 몸을 가진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월경 상식을 심어주는 일은 여성과 연결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젠더 갈등을 해소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여전히 심각한 월경빈곤, 사회적 낙인

2016년 '깎창 생리대' 사건 후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무상지급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지원받는 청소년에게 '가난한 가구'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지원기준도 애매해 지원이 시급한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진 최근에는 '월경빈곤'이 한층 더 심각해졌다.

2021년 서울시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는 '비용이 부담되어 생리용품 구입을 망설임 적이 있다'고, 74%의 청소년들은 '월경용품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용 개수를 줄이기 위해 생리대 교체 권장시간(4시간)을 넘겨 사용한 적 있다'고 답한 만큼 심리적/물질적 월경빈곤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다.

내 몸이 증거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 심각, 생리용품 제조사의 각성과 변화 필요

초경부터 완경까지 여성이 월경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예민함'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했다.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자궁내막증과 불임, 극심한 생리통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있게 나서서 제대로 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생리대가 출시된 지 45년이 지났고 많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그해 8월, 3,009명의 여성들이 '내 몸이 증거다'라는 메시지로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을 제보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생리용품 제조사의 인식을 바꾸고 문제를 개선하는 단초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월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공적 지원 부재로 제대로 된 교육의 필요성 대두

월경에 대한 교육 부재로 부정적인 시선과 금기, 상식적이지 못한 편견 또한 여전하다.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 여성에게 월경은 '그날', '매직', 생리대는 '그것'으로 불리며 영문도 모른 채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현상이 되었고, 젠더 혐오의 소재가 되었다.

공교육에서는 월경과 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아쉬운 상황이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2020 청소년 91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월경용품의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교육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76.7%, 월경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얻는다는 응답이 46.1%로 나타났다. 월경을 터부시하고 혐오하는 풍토도 여전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생리공결제나 생리휴가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2021년 기본소득당 조사, 서울시청 여성 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사용률은 0.4%에 불과함)

아빠와 사는 소녀, 장애 여성, 이동 노동자의 월경 고통 문제 해결의 시급성

게다가 한부모 아빠와 살고 있는 청소년은 월경에 대해 마음 놓고 물어볼 기관이나 믿을 만한 성인이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 시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생리대에 점자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사이즈나 특성을 구별할 수 없다.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는 장애 특성에 적합한 생리용품 개발과 지급지원이 시급하다. 콜센터나 검침원 등 이동 노동자, 건설업 종사 여성에게는 생리대를 교체할 마땅한 장소나 환경이 제공되지 않

는다. 사회적 노력의 부족으로 여성은 월경하는 자신의 몸을 미워하고 부정하게 된다. 월경하는 몸이 자연스럽고 편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놓인 상황이나 위치, 노동조건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제도 변화가 매우 절실하다.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FACT) 제기→검출실험 등 과학적 진단→사회적 변화 실현

질병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다. 특히 자연의 속도에 반하는 현대 산업 구조,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이 주된 원인이다. 나아가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 그러한 물질이 들어간 제품, 작업장, 노동 환경에 주목해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과 변화를 주도해 왔다. 2017년 네일샵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실내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네일 작업이 여성들의 생리통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찾아내어, 정부에 국소배기장치를 제안하고 '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생리통, 외음부 짓무름, 피부알레르기, 자궁내막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검출시험을 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하여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2. 당사자 개개인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실천적 시민과학

시민 개개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운동의 당사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식을 함께 도출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함께 일궈내는 주체이자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편적인 인식과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론은 우리 단체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다.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의 한 지점을 포착하여 일상적인 행동이 커다란 환경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이 단순히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변화에 있지 않고 개인에게서 시작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환경운동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 검출시험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던 월경기간 동안의 불편함이나 고통, 질환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환경연대가 응답하여 생산자의 각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다. 또한 2021년에는 청소년 여성들과 월경정책 수다회를 개최해,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답답했던 문제들을 끌어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참여의 폭을 넓혔다.

3.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공감 스토리텔링으로 캠페인 참여 확산

여성환경연대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시각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상암 월드컵경기장 내 대형마트에서 '파자마 캠페인'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고, 명동 한복판에서 진행한 '문제는 마네킨이야' 퍼포먼스를 통해 야간노동과 대형 마트 노동자의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패션 산업이 몸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소 무겁고 진지해질 수 있는 문제를 발랄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2018년에는 연남동 경의선 철길에서 '월경 피크닉', 하자센터 앞마당에서 '월경페스티벌'을 열어 다양한 세대의 월경경험을 드러내 즐겁고 건강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자유롭게 월경과 몸의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여성환경연대는 주요 캠페인과 핵심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왔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 '톡톡',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을 검색할 수 있는 'face to fish' 웹 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월경 팟캐스트 '블러디 페미니스트' 시리즈를 제작하고 플라스틱 프리 카페 지도 온라인 버전을 만들어 카카오 테마 지도에 올리기도 했다.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1. 여성과 환경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다

자연의 파괴와 비인간 생명체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한 채 여성이 건강해질 수 없고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 그만큼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환경의 파괴와 여성과 연결된 환경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성평등한 환경운동,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여성운동을 꿈꾼다. 여성 건강 문제를 접근할 때에도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외모가꾸기와 시선의 권력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동시에, 화장품 생산과 소비가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어내거나 화학물질 배출로 바다와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감안한 대안을 고민하고 시민 캠페인을 벌인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기후정의가 젠더정의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환 패러다임을 만들어간다.

‘모두를 위한 월경’ 캠페인에서도 일회용생리대가 여성의 몸에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플라스틱 프리’월경을 실천하고 교육한다.

2. 지역풀뿌리 여성활동가, 커뮤니티에 기반한 과학적 실험과 대안을 제시하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공공의 차원에서 변화를 만드는 정책활동과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생활 현장에서 혁신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주민을 감동시키고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경험의 장으로 초대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부 2곳과 지역모임을 기반으로 활동의 현장을 넓혀가고 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먹거리-환경, 생태텃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여성들이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자조모임을 운영하였고, 재래시장 내 제로웨이스트 실천 용기내 캠페인, 지역NGO와 연계한 자치구 월경 조례 제정 및 시행, 자치구 예산/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젠더거버넌스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3. 일상에서 공론장으로, 개인 실천에서 사회시스템 변화와 임팩트로 연계하다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친근한 일상의 한 지점을 포착하여 작은 시작을 통해 큰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여성환경연대의 방식이다. 일상적인 행동이 커다란 환경 문제와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이 단순히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변화에 있지 않고 개인에게서 시작될 수 있으며 개개인이 환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문제의 대안을 여성환경연대가 먼저 직접 실험해보고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관심과 의지가 있는 개인,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네트워크로 만들어 이끌어냄으로써 운동을 확대하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도시텃밭, 플라스틱없다방, 공공월경대 프로젝트 등)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1. 건강하고 안전한 월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이끌어냄

2017년 이후 여성환경연대 캠페인과 정책활동으로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생리대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저감화 대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대 포장재에 성분을 표기하는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부 주도로 3년에 걸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어 월경용품과 여성 건강의 상관 관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정부의 환경보건 정책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월경이 여성재생산건강 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월경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와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정책과 월경용품 시장 변화의 계기 마련

2017년 여성환경연대의 월경운동 이후 월경용품 시장이 변했다. 흰색, 깨끗함을 강조해왔던 생리대 광고에 핏빛이 등장하고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불편함 등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대기업 위주인 생리대 시장에 안전성, 친환경성을 내세운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며 면생리대, 생리컵과 같은 대안 월경용품 시장이 커졌다. 여성환경연대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연대조직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월경교육과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급하는 보편지급 조례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법' 발의 등 월경 빈곤과 공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었다.

3. 다회용컵 사용,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금지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대응 제도화

2010년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컵 사용이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쓰기 운동을 해왔다. 유명인들과 함께 하는 화보 제작, 카페에서 텀블러를 빌려주고 반납하게 하는 '움직이는 컵' 캠페인을 진행했고 '플라스틱없다방'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다회용 빨대 등 대안용품을 소

개하고 플라스틱 프리 카페 정보를 제공했다. 일회용컵 사용을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2020년 12년 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2015년에는 미세플라스틱 이슈에 주목하여 환경단체 최초로 국내에 씻어내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9000여개 화장품을 모니터링했고 서명운동을 통해 화장품협회, 정부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7년 식약처의 화장품법 개정고시안이 마련되었으며 씻어내는 종류의 화장품과 치약 등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었다.

4. 농부와 도시를 연결하는 텃밭운동- 마르쉐@ 시장을 통한 생태적인 라이프스타일 확산

여성환경연대는 아토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먹거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도시에서의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모색하기 위한 슬로라이프 운동의 하나로 텃밭 운동을 시작했다. 학교, 지역에서 시작된 텃밭 운동은 점차 확대되어 문래, 합정, 홍대 등 도심 한복판의 텃밭 조성으로 이어졌고 텃밭을 운영하면서 남아도는 생산물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얼굴이 있는 농산물을 사고파는 장터, 그럼으로써 도시 농업을 응원하고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확산하는 장터 마르쉐@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르쉐@은 관행 농업을 하던 농부들이 토종 씨앗과 다품종 소량 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마르쉐 참여를 통해 농부-요리사, 농부-주변 도시 소비자와의 연결 등 새로운 로컬 푸드 네트워크를 곳곳에 만들어냈다. 전국에 마르쉐@을 닮은 얼굴이 있는 작은 장터들이 생겨난 것도 큰 변화다. 소비자들 역시 마르쉐@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넘어서 도시에서의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먹거리를 통한 농촌, 지역과 관계 맺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삶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 여성들이 마르쉐@가 제공하는 판을 통해 도시농부, 요리사, 수공예 예술가로 진로를 모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5. 제3세계 여성생산자를 지원하는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여성환경연대는 젠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제3세계 여성의 빈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공정무역 여성 생산자들을 방문하고 한국 여성활동가들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환경, 그리고 빈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과 조화로운 공정무역이라는 희망 비즈니스를 통해 아시아 곳곳에 있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만들고, 국내에도 윤리적인 소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인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를 인큐베이팅했다.

■ 제3장 미래비전

※ 제3장은 전년도에 작성하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수정 가능)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월경,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시작하기

준비 없이 초경을 시작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월경 교육은 입시 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생애주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와 돌봄, 체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어린시절부터 건강하지 못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젠더감수성에 무심한 상태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된다.

젠더와 기후위기, 에코페미니즘에서 해답을 찾기

인구 절반이 생애주기 40년 이상 누구나 겪는 보편적 문제이고, **젠더갈등, 생태환경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월경 테마를 믿음직하게 풀어나갈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다. 우리는 AI와 메타버스가 낫설지 않는 첨단 산업사회에 살고 있지만 월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물러있다. 우리사회의 첨예한 갈등인 젠더문제를 처음부터 건강하게 풀어가면서 '모두의 월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여성의 문제들을 생태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유쾌한 공감의 장을 만든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1] [에코페미니즘x액션]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 핵심 목표1 :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을 통한 월경과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책 변화

■ 핵심 목표2 : 월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을 통한 성평등한 관점의 몸 인식 형성

: 시민 누구나, 초경부터 완경까지. 월경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올바른 정보를 확산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는다.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월경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평등하고 안전한 월경 정책과 문화를 형성한다.

[문제2] [에코페미니즘x연결] 젠더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함께 대안을 제시한다

: 여성/생태/젠더갈등/기후위기대응은 개별의 사항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에코페미니즘의 가치, 사람,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플랫폼:달')을 형성한다.

- 핵심 목표 1 : 플랫폼:달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에코페미니즘 가시화 및 네트워킹
- 핵심 목표 2 : 전국 에코페미니스트 활동 및 인물 발굴을 통한 대안 사례 형성
- 핵심 목표 3: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통한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통합적 이해 확산

[문제3] [에코페미니즘x확산] 일상에서 공론장으로, 개인 실천에서 사회시스템 변화와 임팩트로 연계한다

: 지구도 사람도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실천을 확산한다. 교육과 생활 속의 실천, 제도 개선, 정책 도출, 생산자의 각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이끌어 갈 지지자와 동참자를 확대한다.

- 핵심 목표 1: 월경 및 에코페미니즘 활동 홍보를 통한 지지자 확대
- 핵심 목표 2: 지속적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회원 그룹 확대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에 의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월경,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시작하기

준비 없이 초경을 시작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월경 교육은 입시 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생애주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와 돌봄, 체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어린시절부터 건강하지 못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젠더감수성에 무심한 상태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된다.

젠더와 기후위기, 에코페미니즘에서 해답을 찾기

인구 절반이 생애주기 40년 이상 누구나 겪는 보편적 문제이고, **젠더갈등, 생태환경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월경 테마를 믿음직하게 풀어나갈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다. 우리는 AI와 메타버스가 낫설지 않는 첨단 산업사회에 살고 있지만 월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물러있다. 우리사회의 첨예한 갈등인 젠더문제를 처음부터 건강하게 풀어가면서 ‘모두의 월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여성의 **문제들을 생태적으로 실천하고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유쾌한 공감의 장을 만든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1] [에코페미니즘x액션]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 핵심 목표1 :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을 통한 월경과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정책 변화

■ 핵심 목표2 : 월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을 통한 성평등한 관점의 몸 인식 형성

: 시민 누구나, 초경부터 완경까지. 월경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올바른 정보를 확산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는다.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월경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평등하고 안전한 월경 정책과 문화를 형성한다.

[문제2] [에코페미니즘x연결] 젠더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함께 대안을 제시한다

: 여성/생태/젠더갈등/기후위기대응은 개별의 사항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에코페미니즘의 가치, 사람,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 공간('플랫폼:달')을 형성한다.

- 핵심 목표 1 : 플랫폼:달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에코페미니즘 가시화 및 네트워킹
- 핵심 목표 2 : 전국 에코페미니스트 활동 및 인물 발굴을 통한 대안 사례 형성
- 핵심 목표 3: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통한 에코페미니즘 관점의 통합적 이해 확산

[문제3] [에코페미니즘x확산] 일상에서 공론장으로, 개인 실천에서 사회시스템 변화와 임팩트로 연계한다

: 지구도 사람도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실천을 확산한다. 교육과 생활 속의 실천, 제도 개선, 정책 도출, 생산자의 각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이끌어 갈 지지자와 동참자를 확대한다.

- 핵심 목표 1: 월경 및 에코페미니즘 활동 홍보를 통한 지지자 확대
- 핵심 목표 2: 지속적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회원 그룹 확대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스케일 업>

● 에코페미니즘 영향력 증가를 통한 상호돌봄 실천 강화

- 에코페미니즘 지지그룹 <에코팸 크루> 조직 및 신규 회원확대로 돌봄-생태사회를 위한 에코페미니즘 실천 확대
- '돌봄'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여성/생태/복지 시민사회 공동 포럼 추진

●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협업 프로젝트 및 지속적인 발굴

- '에코페미니즘 임팩트 지원사업' 운영경험 및 네트워킹을 활용한 새로운 대안과 실험을 모색하는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그룹과 발굴 및 지원
- 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과 지역, 동네와 개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진행
-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원 프로젝트 개발

<스케일 아웃>

● 우리동네 제로웨이스트 리빙랩 만들기

- '플랫폼:달'을 기반으로 여성 생활잡화 수리 기술자 양성과정 운영 및 동네형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 지역 협업 네트워킹을 활용한 학교, 지역아동센터 연계 면월경대 워크숍, 되살림 교육 진행

● 부설 연구센터, 젠더-기후위기 전문 연구역량 갖춘 기관으로 독립

-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의 자체 연구 프로젝트 지속적인 진행 및 관련 연구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젠더-기후위기 연구 활성화
- 해외 에코페미니즘 단체들과의 교류를 위한 포럼, 워크숍 추진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 월경과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월경 교육자료 온라인 배포를 통한 정보 접근성 확대
- 생태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성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